

#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따른 군집유형과 군집유형별 진로준비행동 차이

김현순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 Classification of Cluster Types Based on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College Students and Analysis of Differences i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by Cluster Type

Hyun-Soon Kim  
College of Liberal Arts, Dankoo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근거로 대학생의 군집유형을 규명하고, 군집유형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생 342명의 자료를 Hair와 Black의 2단계 군집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는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집분석 결과 네 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는데, 군집 1은 진로장벽 수준이 낮으면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도 같이 낮아 '진로 무관심 유형'이라 명명하였으며, 군집 2는 진로장벽 수준은 네 집단 중 가장 높은 반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은 네 집단 중 가장 낮아 '진로 비관적 유형'이라 명명하였다. 군집 3은 진로장벽 수준이 높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도 같이 높아 '진로 도전적 유형'이라 명명하였고, 군집 4는 진로장벽 수준은 네 집단 중 가장 낮은 반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은 가장 높아 '진로 낙관적 유형'이라 명명하였다. 둘째, 군집유형에 따라 진로준비행동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군집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진로 낙관적 유형'이 가장 높고 그다음이 '진로 도전적 유형', '진로 무관심 유형', '진로 비관적 유형' 순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따른 다양한 군집유형이 존재하며, 각 군집에 학생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반드시 부적 상관을 가지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classify the cluster type of college students based on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analyze the difference i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to the cluster type. The data of a total of 342 university students were analyzed. It was classified into four clusters. Cluster 1 was named the 'Career indifference type' because the level of career barriers was low, and the level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was also low. Cluster 2 was named 'Career pessimistic type', and the level of career barrier was the highest, while the level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was the lowest among the four groups. Cluster 3 was named 'Career challenging type', and the level of career barriers was high, and the level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was also high. Cluster 4 was named 'Career optimistic type', and the level of career barriers was the lowest, while the level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was the highest among the four group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to the cluster type. Various cluster types existed according to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students were evenly distributed in each cluster, which suggests that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may not have a negative correlation.

**Keywords** :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luster Type, College Students

본 논문은 2020년도 단국대학교 대학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Hyun-Soon Kim(Dankook Univ.)

email: khsbcr@dankook.ac.kr

Received November 19, 2021

Accepted December 6, 2021

Revised December 1, 2021

Published December 31, 2021

## 1. 서론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낮은 고용률에 코로나 19까지 가중되면서 대학생의 취업률은 낮아지고 취업 준비 기간은 길어지면서 '취업 준비 준비생'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였다. 이는 본격적인 취업 준비를 하기 전에 취업 준비를 위한 비용을 미리 마련하거나 관련 정보를 탐색하는 구직자들을 일컫는 용어이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의 조사에 의하면 대학생 10명 중 3명인 30.4%가 현재 '취업 준비를 위한 준비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답하였는데, 특히, 졸업을 앞둔 4학년의 경우는 응답률이 53.3%에 달하였다[1]. 이처럼 좋은 일자리의 감소와 무한 경쟁의 압박 속에서 취업을 위해 많은 시간과 자원을 소모하며 준비해야 하는 우리나라 대학생에게 진로 결정과 취업 준비를 위한 효과적인 진로준비행동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문제가 되었다.

진로준비행동이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결정된 사항을 성취하기 위해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위들을 가리킨다. 즉, 진로준비행동은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 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과 진로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2]. 진로준비행동에 적극적인 경우 취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취업한 직장에 대한 만족도도 커지지만[3], 진로준비행동에 소극적인 경우 취업의 가능성이 낮아져서 장기적으로는 취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4]. 그러므로 진로준비행동은 빠르고 충분할수록 좋으나, 갈수록 치열해지는 취업 경쟁 속에서 진로를 준비하려는 대학생들은 높은 진로장벽을 마주하게 된다.

진로장벽이란 진로발달과정에서 개인의 진로목표실현을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개인 내적 요인과 개인 외적인 환경적 요인을 의미한다[3]. 진로장벽은 진로계획을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진로 결정에 대한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진로계획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어 진로준비행동을 방해하는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다[5].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는 학생은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가 명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로 관련 정보도 부족하므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수준이 높아져 진로 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6]. 실제로 대다수 학생은 진로장벽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진로 결정에 제약이 받아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할 가능성이 크며, 더 나아가 이로 인해 조기 퇴사나 단기 이직 등의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7].

이처럼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

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8], 진로장벽 하위요인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혼재되어 있다는 연구결과[9,10]도 있고,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11,12]도 있으며, 심지어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방해요인이 아닌 촉진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13]도 있다.

조지혜[14]는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고, 김선중[9]은 진로장벽을 좌절진로장벽과 극복진로장벽으로 구분하여 성격 문제, 정보 부족, 흥미 부족 등의 좌절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신체적 열등감이나 부모와의 갈등 등의 극복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성식과 정철영[13]은 지나치게 낮은 진로장벽지각은 현실적인 체감 부족, 진로 준비의 부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음을 지적하면서, 진로장벽에 대한 과도한 인식은 진로발달을 방해하지만, 적절한 인식은 오히려 진로발달을 높이고 진로장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은 것은 개인의 심리적인 변인과 인지 양식의 차이에 따라서 진로장벽에 대한 지각이 다를 수 있고 대처방식 또한 개인별로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므로[15],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상호 직선적인 관계로만 이해하기보다는 이 두 변인의 관계를 증재하거나 매개하는 변인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연구되고, 대상 및 독립변인과 상관없이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변인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었다[16].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Bandura[17]의 자기효능감 개념을 진로 영역에 적용한 개념으로, 진로 결정과 관련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이다[18].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 결정을 위해 필요한 발달과업에 대한 자신의 효능기대이므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장벽과 부적 상관을 가지며[19,20], 진로장벽의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켜 진로준비행동을 증가시키는 부분매개[21] 또는 완전매개[19]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반드시

진로장벽과 부적 상관을 보이고, 진로장벽의 효과를 상쇄하여 진로준비행동을 증진하는 변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7,22],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도 인과적인 작용을 한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는 연구결과[23]가 보고 되었고, 심지어 진로장벽과 진로의사결정효능감, 진로의사결정 태도 간에 정적 관계를 보고한 연구[24]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그리고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대한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들은 이들의 영향과 그 상호작용의 효과를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는 개인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양상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들 변인 간의 관계만을 고찰하는 것은 서로 다른 진로장벽 수준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을 가진 대학생들 이해하고 이들의 진로준비행동을 원조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집분석을 적용하여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따른 군집유형을 분류하고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대학생들은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따라 어떠한 군집유형으로 분류되는가? 둘째, 각 군집유형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에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는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따른 대학생의 자연스러운 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각 유형에 적합한 진로준비행동 증진 방안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과 충청도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4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고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수거된 총 373부 가운데 불성실 응답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42명의 자료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응답자 가운데 남학생은 140명(40.9%), 여학생은 202명(59.1%)이었고, 1학년은 25명(7.3%), 2학년은 109명(31.9%), 3학년은 111명(32.5%), 4학년은 97명(28.3%) 이었다.

### 2.2 측정도구

#### 2.2.1 진로준비행동 검사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김봉환[25]의 진로준비행동 검사를 일부 수정한 고태용[2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탐색 행동과 준비 행동의 2개 하위요인,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검사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고태용[26]의 연구에서는 .90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7로 나타났다.

#### 2.2.2 진로장벽 검사

대학생 진로장벽을 측정하기 위해 김은영[27]이 Swanson과 Tokar[28]의 진로장애척도(CBI)를 바탕으로 한국 대학생에게 맞게 개발한 한국형 진로탐색장애검사(Korean Career Barrier inventory :KCB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인관계 어려움, 자기 명확성 부족, 경제적 어려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직업정보 부족, 나이 문제, 신체적 열등감, 흥미 부족, 미래불안 등 9개 하위요인,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김은영[27]의 연구에서는 .90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5로 나타났다.

#### 2.2.3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검사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Taylor와 Betz[18]가 개발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CDMSES)의 단축형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 CDMSE-SF)를 이은경[29]이 번안 및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의 4개 요인,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검사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이은경[28]의 연구에서는 .8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 2.3 분석방법

자료는 SPSS WIN 25.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치를 살펴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각 변인 간의 상관을 구하였다. 진로장

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조합에 따른 유형화를 위하여 Hair와 Black[30]의 2단계 군집분석을 적용하였는데, 첫째 단계에서는 위계적 분석인 Wards 방법을 이용하여 군집의 수 및 각 군집의 초기 중심점을 결정하고, 둘째 단계에서는 비위계적 분석인 K-means 방법으로 최종 군집을 확정하여 동일한 군집이 형성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후 군집분석을 통해 형성된 유형 간에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고, 차이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유형 간의 차이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검증 방법인 Scheffé 검증을 시행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진로준비행동, 진로장벽 그리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 첨도 그리고 상관계수는 Table 1과 같다. 정규분포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왜도와 첨도 각각의 값이 3과 10을 넘지 않았으므로 정규분포를 가정하였다[30].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진로준비행동은 진로장벽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 $r=-.34, p<.01$ )을 보이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 $r=.59, p<.01$ )을 보였으며, 진로장벽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 $r=-.59, p<.01$ )을 보였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 Correlation Coefficient

	1	2	3
1			
2	-.34**		
3	.59**	-.59**	
M	3.02	1.98	3.49
SD	.69	.47	.54
Sk	.06	.17	.17
K	-.06	-.37	.13

\*\*  $p<.01$

1. Career Preparation Behavior, 2. Career Barriers, 3.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able 2. Average Difference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by Type

	Type 1 M(SD)	Type 2 M(SD)	Type 3 M(SD)	Type 4 M(SD)	F	post hoc analysis
Career Barriers	1.88(.21)	2.56(.25)	2.14(.18)	1.41(.19)	456.17***	2)3)1)4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3.32(.33)	2.96(.37)	3.63(.32)	4.05(.42)	138.95***	4)3)1)2

\*\*\*  $p<.001$

#### 3.2 군집 분석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따라 동질적인 성향을 지닌 군집을 파악하기 위해 Hair와 Black[30]의 2단계 군집분석을 시행하였다. 1단계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표준화 점수를 이용하여 Wards의 방법으로 계층적 군집분석을 하고, 덴드로그램을 이용하여 네 개의 군집 수를 결정하였다. 2단계에서는 군집의 수를 네 개로 고정하여 K-means 군집분석을 하였는데, 그 결과 군집 1에는 94명(27%), 군집 2에는 85명(25%), 군집 3에는 74명(22%) 그리고 군집 4에는 89명(26%)이 배정되었다.

각 군집의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사후 검증을 통해 각 군집 간에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로장벽 점수는 군집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F=456.17, p<.001$ ), 진로장벽 수준이 가장 높은 군집은 군집 2이고 다음이 군집 3, 군집 1, 군집 4 순이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도 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F=138.95, p<.001$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점수가 가장 높은 집단은 군집 4이고 다음이 군집 3, 군집 1, 군집 2 순이었다.

각 군집의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군집의 이름을 정하기 위해 Table 3에 각 군집 별로 최종군집 중심점의 Z 점수를 기술하였고, 유형별 특성을 쉽게 파악하도록 Fig. 1을 제시하였다. 군집 간에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들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는데, Table 3에서와 같이 모든 하위변인에서 군집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10.67\sim 162.48, p<.001$ ).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각 군집에 다음과 같이 이름을 정하였다. 군집1은 진로장벽 점수가 낮으면서( $Z=-.57\sim .21$ ) 동시에 진로결정효능감 점수도 낮았는데( $Z=-.43\sim -.16$ ), 이는 진로문제를 아직 인식하지 못해 진로장벽을 별로 지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진로결정에 대한 의욕도 없는 상태로 간주되어 '진로 무관심 유형'이라 명

Table 3. Final Cluster Centroid for Each Type

Variable	Type 1 (N=94, 27%)	Type 2 (N=85, 25%)	Type 3 (N=74, 22%)	Type 4 (N=89, 26%)	F
Interpersonal Difficulties	-.09	.93	.23	-.90	86.16***
Lack of Self-Clarity	.08	1.04	.11	-1.09	156.10***
Economic Difficulties	-.46	.82	.50	-.69	74.77***
Conflicts with Others	-.43	.95	.48	-.81	110.41***
Lack of Job Information	.21	1.02	-.06	-1.11	162.48***
Age Problem	-.48	.88	.45	-.67	82.59***
Physical Inferiority	-.57	.86	.62	-.68	99.96***
Lack of Interest	.03	.92	-.03	-.92	84.57***
Future Anxiety	.12	.94	.10	-1.07	133.80***
Goal Selection	-.16	-1.01	.20	.93	107.42***
Job Information	-.29	-.76	.02	.95	76.58***
Problem Solving	-.24	-.32	.38	.25	10.67***
Future Planning	-.43	-.68	.27	.82	61.11***

\*\*\*  $p < .001$

Table 4. Differences i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y Type

	Type 1 (M/SD)	Type 2 (M/SD)	Type 3 (M/SD)	Type 4 (M/SD)	F	post hoc analysi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2.81(.62)	2.66(.57)	3.11(.57)	3.51(.67)	32.86***	4)3)2,1

\*\*\*  $p < .001$

명하였다. 군집 2는 진로장벽 점수는 네 집단 중 가장 높으면서( $Z=.82 \sim 1.04$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점수는 네 집단 중 가장 낮아( $Z=-1.01 \sim -.32$ ), 자신의 진로장벽을 매우 높게 지각하면서도 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느끼는 '진로 비관적 유형'이라 명명하였다. 군집 3은 진로장벽 점수가 높으면서( $Z=-.06 \sim .62$ ) 동시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점수도 높았는데( $Z=.02 \sim .38$ ) 이는 진로장벽을 지각하면서도 이를 극복할 진로결정자기효능감도 높다고 인식하고 있어서 진로장벽에도 불구하고 진로준비를 도전적으로 수행하리라 여겨져, '진로 도전적 유형'이라 명명하였다. 군집 4는 진로장벽 점수는 네 집단 중 가장 낮으면서( $Z=-1.11 \sim -.67$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점수는 네 집단 중 가장 높아( $Z=.25 \sim .95$ ) 진로장벽은 매우 낮게 지각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능력은 매우 높게 평가하여 진로문제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진로 낙관적 유형'이라 명명하였다.

### 3.3 군집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차이 분석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따라 분류된 네 개의 군집 간에 진로준비행동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군집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32.86, p < .001$ ). 이런 유의미한 차이

는 어느 군집들의 차이에 의한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Scheffé 검증을 시행한 결과, 네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군집 4( $M=3.51$ )의 진로준비행동 점수는 군집 3( $M=3.11$ ), 군집 2( $M=2.81$ )와 군집 1( $M=2.66$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는데, 구체적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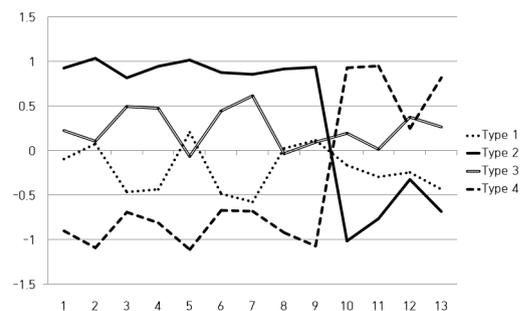


Fig. 1. Profiles by Type

1. Interpersonal Difficulties, 2. Lack of Self-Clarity,
3. Economic Difficulties, 4. Conflicts with Others,
5. Lack of Job Information, 6. Age Problem,
7. Physical Inferiority, 8. Lack of Interest,
9. Future Anxiety, 10. Goal Selection,
11. Job Information, 12. Problem Solving,
13. Future Planning

####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근거로 대학생을 유형화하고, 도출된 군집유형별로 진로준비행동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군집 1은 진로장벽 점수가 낮으면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점수도 같이 낮아 '진로 무관심 유형'이라 명명하였는데, 이 유형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네 집단 중 두 번째로 낮았다. 이런 결과는 진로장벽을 낮게 지각하면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도 낮은 학생들이 진로준비행동에도 소극적이었다는 김연중과 손은령[3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나,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부적인 관계에 있다는 다수의 선행 연구[19-21]와는 다른 결과였다. 이 유형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낮았는데 이는 이 유형의 하위변인의 양상이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성격 문제, 정보 부족, 흥미 부족의 점수는 높고,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신체적 열등감, 부모와의 갈등 점수는 낮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는 진로장벽 하위요인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혼재되어 있다는 선행 연구[9]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군집 2는 진로장벽의 모든 하위변인의 점수는 가장 낮으면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변인의 점수는 가장 낮아 '진로 비판적 유형'이라 명명하였는데, 이 유형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네 군집 중 가장 낮았다. 이런 결과는 진로장벽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이 낮아진다는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며[19,21,26], 진로장벽 지각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확인한 김중윤과 박성실[1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 유형의 특징은 진로장벽을 매우 높게 지각한다는 것인데, London[15]은 진로장벽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상황보다 개인이 그 사실이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인 요인이라 하였다. 따라서 잘못된 정보처리, 인지 왜곡, 역기능적인 비합리적 신념 등으로 인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지각된 진로장벽은 인지 재구조화를 통해 진로장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수정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9]. 그러므로 진로교육과 상담시 학생들이 정서적·인지적 요인으로 인해 진로장벽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극복하도록 지도하는 것도 진로준비행동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유형의 또 다른 특징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을 매개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유미정과 최애경[20]은 진로장벽이 높게 지각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증진함으로써 진로준비행동을 향상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개인이 꾸준히 노력하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려 하고, 성공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학습 가능한 능력이다[33]. 또한, 실제적 능력과 상관없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효능기대이기도 하다[17]. 따라서 실제적 능력을 함양하기 어려운 여건일 경우, 진로 결정과 관련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긍정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실제적 행동을 함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유형의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진로장벽 지각을 감소시키는 전략과 함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전략을 병행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군집 3은 진로장벽 점수가 높지만 동시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도 높아 '진로 도전적 유형'이라 명명하였는데, 이 군집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네 군집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이 유형은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동시에 높아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부적 관계를 밝힌 다수의 선행연구[19-21]와 다르고, 오히려 진로장벽과 진로의사결정효능감, 진로의사결정 태도 간에 정적 관계를 보고한 Luzzo[24]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이 유형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네 유형 중 두 번째로 높고, 진로준비행동도 두 번째로 높아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하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적게 한다는 선행 연구[9,19,26]를 재확인하였다.

군집 4는 진로장벽의 모든 하위변인의 점수가 가장 낮으면서 동시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대부분의 하위변인 점수는 가장 높아 '진로 낙관적 유형'이라 명명하였는데, 이 군집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네 군집 중 가장 높았다. 이 유형은 군집 2인 '진로 비판적 유형'과 상반되는 유형이며, 김연중과 손은령 연구[32]의 '긍정적인 유형'과 유사한 유형이다. 이 결과는 진로장벽을 낮게 지각할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더 잘하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더욱 활발히 한다는 김수리[34], 이종찬과 홍아정[35]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람 중심 분석법(person-

centered analysis)인 군집분석을 사용하여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자연스러운 유형을 파악하고 대학생들의 실제적인 분포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따라 다양한 군집 유형이 존재하며, 각 군집에 학생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반드시 부적 상관을 가지는 것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변인 중심 분석법(variable - centered analysis)을 활용한 다수의 선행연구가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부적 관계를 보고하고 있어[19-21], 진로장벽이 높으면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낮은 '진로 비관적 유형'과 진로장벽이 낮으면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은 '진로 낙관적 유형'에 학생 대다수가 분포되어 있으리라 예상하였다. 하지만 실제 군집분석 결과는 예상과는 달리 '진로 비관적 유형'에 속한 학생은 25%였고, '진로 낙관적 유형'에 속한 학생도 26%에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부적 관계를 보인 유형에 속한 학생은 51%로 절반에 지나지 않았다. 오히려 소수일 것이라 예상했던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둘 다 낮은 '진로 무관심 유형'에 27%,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둘 다 높은 '진로 도전적 유형'에 22%의 학생이 분포되어 있었다. 이 두 유형은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같이 낮거나 같이 높아서 오히려 두 변인 간의 정적 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유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부적 상관을 가진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이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고 변인과 변인들의 영향만을 고려한 일방적인 고찰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진로장벽을 낮추려는 시도보다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증진하려는 노력이 더 효과적인 전략임을 확인하였다. Table 1에서 알 수 있듯이 진로준비행동은 진로장벽( $r=-.34$ ,  $p<.01$ )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r=.59$ ,  $p<.01$ )과 더 상관이 높았다. 그뿐만 아니라 Table 2와 Table 4의 각 변인의 점수 순위를 비교해보면, 진로준비행동을 기준으로 한 군집의 순위는 진로장벽을 기준으로 한 순위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기준으로 한 순위와 더 일치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장벽보다 진로준비행동을 더 잘 예측하는 변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진로장벽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상황보다 개인이 그 사실이나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인 요인임에 반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과업을 성공적

으로 수행하리라는 개인의 신념으로서 보다 안정적인 인지적 특성이기 때문이다[36]. 따라서 진로상담이나 진로지도 시 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증진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와 충청도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의 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 추후에는 연구대상의 수를 늘리고 체계적인 표본추출방법을 적용하여 다양한 학교 유형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연구가 이어지기 바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 학년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남성에게 비해 여성이 진로나 직업선택에 더 많은 장벽을 경험하며[13],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로 준비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므로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진로장벽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7].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표본추출방법을 적용하여 성과 학년이 진로장벽 지각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가 상세히 고찰되길 바란다.

## References

- [1] J. Y. Jung, 3 out of 10 college students "I'm a job-ready student". YTN [Internet]. [cited 2021 July 30]. Available From: [https://www.ytn.co.kr/\\_ln/0103\\_202107301510068253](https://www.ytn.co.kr/_ln/0103_202107301510068253) (accessed Nov. 03, 2021)
- [2] B. W. Kim, K. H. Kim,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9, No.1, pp.311-333, 1997.
- [3] E. R. Sohn, "The Relationship of Personal, Psychological Variables and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College Women Student",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4, No.2, pp.415-427, 2002.
- [4] H. S. Oh, J. H. Lee, "The Effect of Career Anxiety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Senior Undergraduates: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Barrier an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Life Goal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33, No.1, pp.85-108, 2020. DOI: <https://doi.org/10.32341/JCER.2020.03.33.1.85>
- [5] H. H. Kang, "Effect of Career barrier on Polytechnics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Resilience",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8, No.1, pp.59-78, March, 2015.

- [6] R. W. Lent, S. T. Brown, G. Hackett,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47, pp.36-39, 2000.
- [7] H. B. Park, E. R. Sohn,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Career Barriers and Career Involvement Behavior in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Career Adaptability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6, No.8, pp.157-182, 2019.  
DOI: <https://doi.org/10.21509/KJYS.2019.08.26.8.157>
- [8] J. C. Lee, M. J. Park,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Expectation About Career Counseling Among College Student",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0, No.2, pp.111-128, 2007.
- [9] S. J. Kim,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s, Hop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Ph.D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2005.
- [10] H. K. Ahn, *The Influences of Hope, Parent Support and Career Barrier on High School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2008.
- [11] H. S. Park, H. C. Jin,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Career Barrier, Career Motivation and Career Preparation in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Motiv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8, No.13, pp.591-616, 2018.  
DOI: <http://dx.doi.org/10.20496/cpew.2020.7.2.345>
- [12] T. H. Choi, M. S. Park, "Mediating effect of Job-seekers' accidental response skill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ir career barriers and their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Welfare*, Vol.17, No.2, pp.345-357, June, 2020.  
DOI: <http://dx.doi.org/10.20496/cpew.2020.7.2.345>
- [13] S. S. Lee, C. Y. Jyung, "A Casual Model among Perceived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Vol.39, No.4, pp.83-109, 2007.  
DOI: <https://doi.org/10.23840/agehrd.2007.39.4.83>
- [14] J. H. Jo, *The effect of achievement motive, work value, and career barrier o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2016.
- [15] M. London, "Overcoming career barriers: A model of cognitive and emotional processes for realistic appraisal and constructive coping",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Vol.24, pp.25-38, 1997.
- [16] Y. R. Park, S. Y. Ahn, B. Y. Choi, "Meta- Analysis on Variables Related to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14, No.3, pp.381-397, Oct, 2017.  
DOI: <https://doi.org/10.16983/kjsp.2017.14.3.381>
- [17] A. Bandura, "Self-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84, pp.191-215, 1977.
- [18] K. M. Taylor, N. E. Betz,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22, pp.63-81, 1983.
- [19] J. U. Kim, S. S. Park,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6, No.3, pp.123-141, 2013.
- [20] M. J. Yu, E. K. Choi, "Impact of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Focused on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ecretarial Science -", *The Journal of Business Education*, Vol.19, pp.129-153, 2008.
- [21] E. S. Kim, J. P. Kim, J. C. Le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areer Barrier, Major Satisfact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Drama & Theatre majors in Credit Bank System",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31, No.1, pp.131-151, Mar, 2018.  
DOI: <https://doi.org/10.32341/JCER.2018.03.31.1.131>
- [22] B. J. Jin, H. W. Chung, "The Effect of Career Barrie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esteem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1, No.4, pp.295-317, 2021.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21.21.4.295>
- [23] M. S. Lee, *Analysis of Relationship among Career Self-Efficacy, Career Barriers Percep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Jeonju University, Jeollabuk do, Korea, 2003.
- [24] D. A. Luzzo,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occupational barriers and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Vol.22, No.4, pp.239-248, 1996.
- [25] B. W. Kim,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97.
- [26] T. Y. Ko,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Barrier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Ph.D dissertation, Mokpo National University, Korea.
- [27] E. Y. Kim, "A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College Students' Career Barrier Inventor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4, No.1, pp.219-240, Feb.

2002.

- [28] J. L. Swanson, D. M. Tokar,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barriers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38, pp.92-106, 1991.
- [29] E. K. Lee, *Study on the effect of self-efficacy upon the career development*, Ph.D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2001.
- [30] J. F. Hair, W. C. Black, Cluster analysis. In L. G. Grimm & P. R. Yarnold (Eds.),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0, pp.147-205.
- [31] R. B. Kline, *Methodology in the social science.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2nd ed.). Guilford Press, 2005.
- [32] Y. J. Kim, E. Y. Son, "The Relation of Two Dimensional Typology in Perceived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with College Students' Learning Behavior",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3, No.5, pp.2443-2461, 2012.  
DOI: <https://doi.org/10.15703/kjc.13.5.201210.2443>
- [33] E. B. Jeong, E. S. Joo, "A study on differences between career barrier awarenes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by female college students' levels of focusing manner",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10, No.1, pp.1-30, 2020.  
DOI: <https://doi.org/10.35273/jec.2020.10.1.001>
- [34] S. R. Kim, *The influence of parent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on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Ph.D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2005.
- [35] J. C. Lee, A. J. Hong,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Self-leadership up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Employability",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6, No1, pp.69-92, 2013.
- [36] G. Hackett, N. E. Betz,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a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18, pp.326-339. 1981.
- [37] J. H. Park, H. S. Kim,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mpus Adjustment of th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6, No.11, pp.125-144, Dec. 2009.

김 현 순(Hyun-Soon Kim)

[정회원]



- 1988년 2월 :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08년 2월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12년 9월 ~ 현재 :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교양학부 교수

<관심분야>

진로상담, 청소년 상담, 학교폭력, 상담이론, 성폭력